

그넷날 그 시절에 딸삼형재 나두고 부인은 죽어불고 홀아비로 살명 딸삼형재를 장성시기자하니 가난하여 살 수 업서 산중에 올라가고 삭달나무을 하여다가 파라서 구입생활 하는대 하르날은 백발노장이 나오아 하는말이 딸 삼형재 양성할야니 고생만이 함내다 천금을 내여 드릴터이니 택 일할 필요업시 큰딸 내여 주시요 부제집에 맛 매노리로 중매하여 드리리외다 내여주니 다려가서 심심산중 골짜속에 존집이 이서고나 그집안에 다려다노코 하는말이 너는 천금을 주고 사시니 내 소실로 하갯로라 사람다리 뼈를 앞대래 노면서 너는 이거을 삼일사이에 먹어치와라 이거을 먹은 후에는 내가 도라올 노라 삼일간을 처녀는 눈물로 날을 지내고 마룬 널을 여라서 감추어두고 천 연이 안자더니 노인이 도라오아서 너 사람다리를 다먹어느냐 예 하니 다리야 불으니 마루 널 알로 대답을 하는고나. 에이못된년 탁 갈겨 죽여 두고 또 나가서 셋딸 보고 너형은 부제집의 맛매 노리로 환영을 밧고 잇다 너가서 안볼 내 셋딸아기가 보갯습내다 하니 달고 가서 말을 안드르니 갈겨죽여 두고 말젓딸 안테 가서 너의 형내는 친정에 선신문안오로 모랜날 도라올 거이니 나과 일채 갖다가 너형내 올때랑 갖지오라 짐이 만 하여서 너가 가서 난와 지고 오라 가난한 아비는 폭 속아서 조근딸을 보내는고나 노인을 따라가고 보니 형이 업고나 형은 어딤가고 업숨내가 식글업다 호통이을 치는고나 조근딸아기씨 머리가 조하서 노장님아 저을 다리고 살고퍼서 다려오 아습내가 그러하다 사람다리를 하나 갖다 노코 구일동안 다 먹어 치와라 그러면 내 부인이 적실하다 랑군님아 전는 이 새상에서 사람고기을 먹으라하니 처음으로 듯습내다 그래도 먹어야 한다 꼭 먹개습내다 그런대 서방님은 먼 물품이 재일 실어 하여 짐내가 나는 닭기알 생거 실어하여지고 동쪽에 버든 버들남 가지을 실어한다 그건 엇던일로 그럼함내가 그내용은 아흐래 사이에 사람 다리을 다먹은 후에 말하갯노라 예 서방님 당겨오십시요 찌나부니 화목을 가져다가 불 살아서 걸쳐 구으니 줄어 드려서 손바닥만이 하니 포대기에 싸서 배에 차고 방 소지를 하고 잇더니 열흘간아침 인묘시에 서방이 오라시니 다정하개 손을 죄고서 서방님 저는 기다리고 잇습내다 당신 다리을 먹엇소 예 먹어습내다 다리야 불으니 겿에 부인배로 예 대답을 하니 이재야 내 부인을 만나고나. 그러시면 서방님 성명 삼자을 알려 주소서. 나는 땅귀신 지귀니라. 그러시면 닭기알 생것과 버들남 동대래 버든가지을 외 실어하시요. 날닭기알은 둥글기 잘하고 의지가 업고 잘 못하면 까지기 쉽고 동대래 버든 버들남가지는 한번 후려 마지면 온사족이 자리고 조화를 부일수가 업고 천귀가 말을 무려도 내 몸이 버더저서 일어 뵈저드리지 못하고 닭기알 보고 일어라하여도 나는 눈도 코도 업스니 나모른다 하고 천귀는 닭기알을 주서서 나 얼굴에마쳐 불면 까저서 자린 몸에 어구마저 운신을 못하기 따문 제일 실려해지오 서방님 아고 머리에 니가 만이 이럿습

내다 그이상 실려 하시는건 업슴내가 도실남도 실려하오 엇지해서 동대래 버든가지만 그리 실려 함내가 해빋을 몬저 밧기로 독이 더 품어 잇소 잠간 저가 소변을 보고 오개습내다 소변보래 가는차록 하여 나가서 구일간에 준비한 버들남과 닭기알을 오른손에 버들남 왼손에 닭기알을 가지고 오라서 서방님 이개 무슨 남임내가 하니 지귀는 그거을 보고 땀을 팔팔 내면서 그 버들남 치와던지소 버들남으로 서방님 말이 올은가 좀 시염을 하개습내다 용서하소서 동쪽대래 도망을 할나하니 버들남 가지로 확확 후리니 방울땀이 달달하면서 자빠져 죽어 가는고나 닭기알 에는 천평 지평을 쓰어서 양엇개와 양다리 겹에 노아 두고 아기씨는 형님내여 원수를 갑하시니 어느방에 계신지 영혼이여 나오서요 이방에 잇노라 언이 내 목소리가 분명하고나 그 방문을 열고 보니 수정업시 치어마자 죽어고나 시채을 치마통에 거드담고 집으로 도라와서 정문박에 모사노아두고 아바님 전에 사실대로 본말 적관한 말을 전부 일어드리니 아버지는 가난하개 사는 나 죄로다 형내을 매장하여두고 아버지와 딸이 버들남과 도실남을 아름가득 가져서 지귀집을 가고 보니 이러 날나고 힘을 쓰고 익고나 버들남과 도실남으로 백대를 치어서 죽으니 석상에 쓰러다노코 돌맹이로 마사 가르되니 허풍에 붙여 두고 그집안을 조사하고 보니 금과옥이 만하여시니 그 거을 담아다가 거대한 부자가 되여습내다.

문창현, 『풍속무음(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pp.401-415.